

성장을 꺼리는 피터 팬 증후군 척도의 타당화

김 성 일*

강릉원주대학교

심 은 영

강릉경포초등학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주저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Randolph와 Dye(1981)가 개발한 피터 팬 증후군 척도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영동지역 초중등학생과 대학생 727명에게 2가지 준거검사와 함께 이 척도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고유가 1이상인 6개 하위요인과 요인부하량 .40이상인 27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고, α 계수로 산출된 검사의 신뢰도는 하위요인에 따라 .58-.82로 나타났다. 준거척도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관은 다소 약하게 나타났으나 자아정체감과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피터 팬 증후군 정도는 성별 차이는 없었으나 초등학생이 중고생이나 대학생보다 낮고,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피터 팬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한 이 검사의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한 영역에서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밖의 보완책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피터 팬 증후군, 청소년, 심리검사, 타당화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인지발달에 의한 자아 정체감의 탐색은 아동기의 확립된 자아가치를 위협하여 성숙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다.

사람은 누구나 아동기의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며, 많은 책임과 의무에 당면할 때 그와 같은 기억이 위안이 된다. 동화 *Peter Pan*에 나오는 주인공은 환상과 경이로운 미지의 세계(Never Never Land)에서 모험을 즐기는 영원한 소년이며, 여기서 유래된 피터 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은 성인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청소년으로 남아 있으려는 부적응 남성들을 Kiley (1995)가 지칭한 용어이다. 피터 팬 증후군은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무책임, 불안, 고독, 성역할 갈등으로 대인관계가 서툴고 이 갈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명랑하고 활기 있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현상이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자유와 성인기의 책임 간의 갈등을 성숙으로 인한 독립과 힘에 의한 보상으로 해결하지만, 일부는 이 갈등이 결코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위기를 악화시키기도 한다(Randolph, & Dye, 1981). 이와 같은 연장된 청소년기는 교우관계의 실패, 높은 자기기대, 자기비판과 주장의 결여, 고도의 자기에로 인하여 심한 자기중심적 특징을 갖게 된다. Mitchell(1971)은 청소년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이유를 성숙에 의한 자율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누리는 책임감의 면제에서 벗어나기 싫고, 성인기의 냉정하고 사무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의존이 가끔 결핍을 의미하더라도 안전과 확실함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roger(2004, 2007, 2011)도 청소년들이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지만 여전히 의존적인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조속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성인기에 걸맞은 근로의 의미나 검약 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Woodward, 1990). 그들은 즉각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조장하는 전자매체의 영향으로 욕구 충족과

소비에 익숙하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 정신적 연마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이영호, 2002). 실제로 세계 12개국 10대의 디지털세대(digital generation) 6,000여 명을 조사한 Tapscott(2009)는 그들의 생활방식에서 언제나 재미를 추구하며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관습적인 삶을 거부하는 특성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스컴이 14%로 부모만큼이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애 등, 1997). 그들은 고뇌와 갈등에 대처하기보다는 보호에 안주하려고 하며 자기의혹과 권위에 대한 반발로 영원한 청소년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박아청, 2008).

또한 부모가 다 해줘서 공부 이외에 다른 경험을 할 기회가 차단되어 독립심이 결여된 “마마보이”(mama’s boy)나 “파파 걸”(papa’s girl)이 세계 도처에서 양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며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려고 과잉 보호하는 부모가 늘어나, 많은 대학의 입학 담당자들 가운데 77%는 부모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동아일보, 2010. 10. 4). 일본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에 실망한 젊은 층의 2/3가 결혼이나 구직에 무관심하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09, 6. 15). 우리나라에서는 무늬만 독립이지 취직, 결혼, 주택구입, 육아, 생활비, 학원비 등을 부모에게서 도움 받는 “서른살 아기”, “서른다섯 어린이”도 늘고 있다(조선일보, 2009, 5, 19).

근래에는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되었다. 전국 청소년과 학부모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이종원, 오승근, 김은정, 2010), 가족관은 전통적인 부계 중심에서 모계 중심으로 변화하여 자녀 모두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친밀감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여러 연구(Beyers, & Goossens, 2003; Dwairy et al., 2006; Miklikowska, Duriez, & Soenens, 2011)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독립, 즉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부모의 승인이나 지지, 수용적 태도 또는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서적 독립이 적응과

비례하며, 부모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자녀의 심리적 분리를 방해하고,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은희와 정순옥(2006)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중요하며, 어머니의 애정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과보호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김혜진과 방희정(2008)도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고교생들의 분리-개별화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분리-개별화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Gilligan, 1982). 여자는 관계를 중시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만 남자에게는 자율이 중요하고 가계 계승의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Josselson, 1988). 이는 부모와 별거하는 학생이 동거하는 경우보다 분리-개별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제현, 1994).

이와 같이, 아이와 같은 어른이 증가하면서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 현상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이 증후군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오래 전에 Randolph와 Dye(1981)는 피터 팬 증후군 척도(Peter Pan Profile)를 개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이 검사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사의 요인구조와 문항을 분석하고, 준거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관련 변인에 따른 검사점수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피터 팬 증후군의 개념과 특성

청소년기에는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가 부모에게서 친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유발되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 경향이 강해진다. 이와 같은 자아정체감 확립의 갈등에 직면하여 자아가 약한 청소년은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성인이

되어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피터 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Kiley(1995)가 James Barry의 동화극 Peter Pan의 주인공의 행동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 명명한 것이다(Yeroman, 1998).

이 증후군과 비슷한 개념으로 5가지가 있다(김미령, 2008). 첫째 유형은 20세기 말엽 프랑스에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일컫는 캥거루(kangaroo)족을 들 수 있다. 이들로 인하여 근로의욕 저하와 소비 성향 조장의 폐단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로는 모라토리엄(moratorium) 인간으로 아무런 직업도 없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 없이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려는 유형이다. 세 번째로는 유아기의 불안정애착으로 건전한 모자관계를 이루지 못해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mama's boy)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동의 분위기와 감정을 추구하는 키덜트(kidult: kid+adult)가 있다. kidult는 각박한 현대 생활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인형과 같은 귀여운 것들을 애호하며, 어린이의 심상을 마음 한 구석에 유지하려는 긍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끝으로, 트웝스터족(twixters)이 있다. 이들은 대학을 장기간 다니고 졸업 후에도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며 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영국 정부가 고안해 낸 통계용어로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있다(조선일보, 2011. 3. 15). 의무교육을 마친 후에 직장이나 상급학교도 안 다니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아서 취업의욕마저 상실하고 목표 없이 빈둥거리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2011년 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5-34세의 니트족이 103만 명을 넘어섰고, 남자가 62%, 대졸자가 25%, 고졸자가 56%로 드러났다.

피터 팬 증후군은 청소년기에서 무책임, 불안, 성역

할 갈등을 보이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자기애와 남존여비 사상을 나타내고 성인이 되면 이러한 특성이 만성화되어 배후에 숨게 된다. Kiley(1995)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의 소산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양육된 피터 팬 유형의 아동들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 되어 정리정돈이나 예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며, 매사를 미루기만 하는 게으름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들의 아버지는 강인한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 특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권위자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화를 내고 죄의식으로 고민하는 모순된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자기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머니의 동정을 사려고 하면서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낀다. 이들의 가정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여유로운 시간을 교우관계를 통하여 보내려고 하지만 여의치 못해 초조해 하고 고독감에 휘말리게 되면서도 자신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적 무능감이 있다. 또한 그들은 이성관계가 미숙하여 남자다움을 과장하는 성적 콤플렉스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마술적 사고도 지니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립을 두려워하며 타인에 의해 보호받으려 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를 갖게 된다(박아청, 2008). 만성적인 우울로 무기력조한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생활에 반발하여 불안정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능력 불신과 성공에 대한 공포로 의존심을 형성하게 되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아동과 같은 행동을 한다.

피터 팬 증후군의 실태

피터 팬 증후군의 실태에 관해서는 정확히 조사된 바 없지만, 근래 국내외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흔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 곁에 머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미국에서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썬더족이 근래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스포츠서울, 2008, 9, 1). 20대 후반의 미국 남성 20%와 여성 12%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으며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비율도 과거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청년 실업이 32%에 달하는 이탈리아에도 독립하지 않는 어른들이 증가하고 있어, 30세 미만 남성의 7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조선일보, 2010, 1, 18), 심지어 40세가 지나도 계속 부모 집에 기거하는 아들을 강제로 내쫓는 경우도 수백 가정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2011, 9, 22). 영국에서도 대졸자의 27%가 취업을 못해 부모 곁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조선일보, 2011, 8, 9). 일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2000년 봄에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의 9%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의욕마저 없이 시간제 일로 만족하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0, 12, 8).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실업이 늘면서 졸업을 늦추고 부모에게 생활을 의지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8%로 조사되었지만 실제 취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률은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취업 포기자와 진학자 그리고 군입대자는 취업률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1, 8, 8). 대졸 취업자는 61%이고 이 중에서 정규직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의 어떤 유명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5% 정도가 졸업을 하지 않고 수업도 받지 않는 재학생 신분으로 남아 대학원 진학이나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선일보, 2011, 8, 6).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하의실종 패션까지도 이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동아일보, 2011, 8, 6). 즉, 아동들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하의실종 패션에서 임신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부모가 되기 싫어하는 가임기 여성들의 퇴행심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직업도 결혼도 아이도 집도 어느 것 하나 쉽게 성취할 수 없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그저 아이처럼

럼 감각적으로 즐기면서 편히 살고 싶다는 절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로는 청소년들의 미래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의하면(금명자 등, 1997), 청소년들의 40%가 실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을 즐기며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한 한국인 학생 중 44%가 중퇴하는 주된 이유는 독립심 부족으로 대학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조선일보, 2009, 10, 15). 부모의 지원과 압력으로 내적 동기가 약화된 마마보이와 학원이나 과외에 너무 의존하는 티처보이(teacher's boy)들은 자기주도학습의 분위기에서 걸뚱다가 떠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피터 팬 증후군과 자아정체감

피터 팬 증후군은 아동의 심리적 세계에서 성인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영원한 소년과 같다. Erikson(1994)은 이러한 현상을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여 당황하게 되고 이전까지 받아들였던 자기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의문과 탐색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 동일성에 대한 지각과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며, 이 갈등이 길어지면 정체감 혼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혼미 상태가 피터 팬 증후군의 특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체감 혼미는 자기회의를 초래하여 자기중심적 편견과 활동에 몰입하게 만들고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무심하도록 유도한다(Rice, & Dolgin, 2008).

Cote(2009)는 역할수행이 장기간 불안정하거나 이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감내하지 못할 때 정체감 위기가 초래되며, 정체감 혼미에 처하면 자존심 저하로 외적 귀인을 하게 되어 개방성과 내적 확신을 어렵게

만들고 능력 부족에 기인한 실패의 두려움으로 성취 노력조차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녀가 지나치게 보호를 받아 성인의 각본에 따라 생활하게 되면 자아통합성이 결여되어 내외 압력에 피해의식을 느끼며 독립심이나 책임감 또는 인내심이 약화되고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한다. 과보호 사회는 자신의 능력을 단련하고 좌절을 극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남성적 모험이 결핍되어 정체감 유예나 혼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확립이 지체되는 것이다(박아청, 2008). 자녀수 감소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는 불안정 애착과 분리불안을 초래하여 진학 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위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으며, 자립의 고뇌와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보호에 안주하려고 한다. 부모가 자녀의 자아를 적절히 격려하지 못하면 자아와 주변 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상적인 발달이 지장을 받아 아동기의 자아로 회귀하려는 부당한 압력을 느낀다(Satinover, 1990).

피터 팬 증후군과 관련 요인

피터 팬 증후군은 자아정체감 유예나 혼미와 연관되기 때문에, 정체감 형성과 관계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피터 팬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정환경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은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송현옥, 박아청, 2009; 박아청, 이승국, 1999) 그다지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김선애, 연진영, 1989; 이차선, 1998)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지위 환경이 피터 팬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은 재확인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선애와 연진영(1989), 최윤화(2003)는 부모의 통제가 적고 칭찬을 많이 받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성취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ovitz(1990)도 초기에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과 같은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존심과 독립심 발달이 지체되고, 자녀의 억압된 분노와 상처가 성장 실패와 자아상 저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보호 부모에 의해 양육된 자녀는 자신감과 성취지향 및 자제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아청, 2002).

특히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가족과 자녀수 감소로 모자 관계가 중심이 되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반면에, 아버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자녀 주변을 맴돌며 과보호하는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이 크게 늘고 있고, 언제나 위치를 추적하며 잔소리를 하는 “휴대전화 맘”(cell phone mom)과 자기 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알파 맘”(alpha mom) 그리고 모든 것을 코치에게 일임하는 “현명한 맘”(smart mom)도 적지 않다(조선일보, 2010, 9. 1). 이탈리아에서도 이혼의 30%가 밀착된 모자관계로 발생하여 앞치마에 매달린 아들이란 의미의 “맘모니”(mommoni)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동아일보, 2006, 11. 13). 물론 국내에서도 대학생 자녀의 수강신청, 성적관리, 취업 상담, 근무여건,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대행함으로써, “나이든 고교 4년생”이 증가일로에 있다(조아미, 2008; 조선일보, 2009, 5. 19). 밀착된 성공 지향적 문화에 따른 경쟁 양상을 반영하여 자녀를 미숙한 성인으로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04. 5. 5). 과보호로 인한 자녀의 특성은 요구가 잘 수용되었기 때문에 인내심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시선과 자극에 민감하고, 감정표현과 처리 방식도 미숙하여 대인관계에 문제도 초래한다. 피터

팬 증후군이 어머니의 과보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한편, Colom과 Lynn(2004) 그리고 Meeus 등(2010)은 여성의 사춘기가 남성보다 2년 정도 빠르기 때문에 정체감도 일찍 성취된다고 주장하였고, 권이중과 김용구(2007)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체감 위기를 빨리 맞는다고 한 반면에, 허혜경과 김혜수(2010), 문용린 등(1996) 그리고 Bussey(2011)는 남성의 발달수준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정체감은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대체로 혼미와 유예가 감소되고 성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권이중, 김용구, 2007; 안귀덕 등, 1992; Meeus et al., 2010). 그러나 이성진(2005), 이현림과 천미숙(2003)은 성별이나 중고등학생 간에 전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터 팬 증후군의 학교급과 성차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듯하다.

방 법

대 상

조사대상은 영동 지역의 소도시 속초와 강릉에서 규모가 큰 학교를 학교급 별로 각 1-2개교를 선정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2학년생,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 대학교 2-3학년생, 전체 760명을 표집 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33명을 제외하고 727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조사 대상은 표 1과 같이, 성별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학교급 별로는 대학생이 다소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이 가장 많았다.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급 학생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자신의 학교 성적은

표 1. 조사대상의 변인별 분포

	학교급				성별		학교 성적			경제적 수준			어머니 학력			계
	초	중	고	대	남자	여자	상	중	하	상	중	하	중졸	고졸	대졸	
N	185	151	159	232	332	395	184	441	102	69	380	78	94	392	241	727
%	25.4	20.8	21.9	31.9	45.7	54.3	25.3	60.7	14.0	9.5	79.8	10.7	12.9	53.9	33.1	100.0

하위로 판단한 비율이 다소 낮고,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중류층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도구

검사 도구는 Randolph와 Dye(1981)가 개발한 피터 팬 증후군 척도(Peter Pan Profile)로, 6개 하위요인에 따라 각 8문항씩 구성된 5단계(아주 찬성은 5점, 아주 반대는 1점) 평정척이다. 전체 48개 문항 중 절반은 부정적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채점 시 역산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 즉 증후군이 약한 것으로 해석한다. 검사 문항은 아동으로 머물러 있으려는 청소년들의 진술과 그들을 면담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피터 팬 증후군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 특성들은 지나친 의존성, 성인기의 책임과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강한 두려움, 성적 충동에 대한 공포, 낮은 자존감, 빈약한 친구관계, 학업성적 저조, 심한 자기중심성 등이었다.

하위요인의 선정은 증후군에 관한 특성과 발달심리학자들(Erikson, 1994)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모자관계는 발달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부자관계도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행동의 습득에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훈육이 일관되고 공정할 때 아동기는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기억된다. 아동기가 불안정할 때 발달과업은 방해받고 성숙이 두렵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기에 관한 태도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와 성인을 동일시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며, 보다 성숙한 방어기제를 발달시키는 능력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능력은 미래에 대한 예상과 성인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아동들은 자신감을 획득한다. 이 자신감은 현재에 대처하고 미래의 성공을 예상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존심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성장하려는 욕구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성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미래가 긍정적이

라는 믿음에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14~18세 백인 청소년 534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검사의 신뢰도는 반분신뢰도가 .85, 5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가 .80이었으나 하위요인별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검사점수의 상 하위 25%에 의해 양분한 집단 간 평균치 차이와 총점과의 상관($r=.54$ 이상)으로 문항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검사 점수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별로는 미래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고 다음으로 아동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에, 성인기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의미는 성인기에 대한 태도가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부정적 태도가 자아 가치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동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사실뿐만 아니라 왜곡된 기억도 반영된 것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성장을 주저하는 청소년들은 소수이었고, 대부분은 교우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필요한 상호지원을 제공하며 성인기의 역경을 극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Randolph와 Dye(1981)가 개발한 피터 팬 증후군 척도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두 가지 준거척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검사이다. 이 두 가지를 준거로 설정한 것은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터 팬 증후군의 형성에 어머니의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감의 유예나 혼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는 이현주와 강민희(2008)가 Buri(1991)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를 서울 지역 중고생 475명을 대상으로 우리 실정에 알맞게 타당화한 것이다.

표 2. 피터 팬 증후군 척도의 개요

하 위 요 인	내 용
I. 자존감에 대한 태도	비판과 칭찬의 수용, 행동에 대한 책임, 자기 가치관
II. 아버지에 대한 태도	아버지와의 친밀감, 훈육, 존중, 권위, 의사소통
III. 아동기에 대한 태도	교우관계, 아동기에 대한 애착과 불안정
IV. 성인기에 대한 태도	성인의 자유와 행복, 긍정적 기대, 역할모형, 우려
V. 어머니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지지, 이해, 신뢰감, 친밀감, 의사소통, 동일시
VI.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	미래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적 태도, 교우관계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 검사의 개요

하 위 영역	내 용	문항 예	검사의 신뢰도 (α)	
			원검사	본검사
1. 민주적	지도 방향을 제시하며 온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내 행동을 지도한다.	.85	.879
2. 권위주의적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부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73	.759
전체		20 문항	.80	.862

이 검사는 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3개 영역에 따라 요인부하량 .40이상인 문항 24개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어머니의 태도가 각 진술문의 내용과 합치될수록 점수가 높으며 민주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검사의 α 계수가 너무 낮음(49) 허용적 영역 4 문항은 제외하고 민주적 영역 12문항과 권위주의적 영역 8문항을 활용하였다.

어머니의 민주적 영역과 권위주의적 영역은 역 상관($r = -.44$)을 보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준거 척도인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연관성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통제($r = .64$), 과보호($r = .34$)는 긍정적 상관을, 민주적 태도와 통제($r = -.59$), 과보호($r = -.21$)는 역 상관을 보였다. 친밀감은 어머니의 민주적 태도와 긍정적 상관($r = .76$)을, 권위주의적 태도와는 부정적 상관($r = -.38$)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경우는 66.9%, 권위주의적인 경우는 21.7%이었고,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민주적 태도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75.6%가 일치되었으며, 부모 모두 학교급(중학생과 고교생)간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사의 개요와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본 검사

의 신뢰도 계수는 원 검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하나의 준거척도는 자아정체감 검사이다. 이 검사는 박아청(2003)이 경북 지역 청소년 4천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3가지 유형(지위분류, 구성요인, 발달단계)에 따른 4종의 검사문항을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선정한 것이며, 6개 하위 영역별로 각 10개 문항씩 배정되어 있다. 각 문항의 진술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39개 문항은 부정적 진술문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3종의 유사 정체감 검사와 공인타당도 계수는 모두 .58로 나타났다.

이 검사의 기본적 이론은 정체감 점수가 높은 사람이 타인과 비슷한 동기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통합(integrity of self)을 이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개요와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α 계수로 산출된 검사의 신뢰도는 전체 .942이었고, 본 연구에서 재산출한 신뢰도 계수도 .956으로 나타나 원 검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4. 자아정체감 검사의 개요

하 위 영역	내 용	문항 예	검사의 신뢰도(α)	
			원검사	본검사
1. 주체성	자신의 역할이나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743	.737
2. 자기 수용성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인정함	나는 집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834	.856
3. 미래 확신성	자신의 장래 계획에 대한 확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있다.	.827	.916
4. 목표지향성	스스로 지향하는 목표를 신뢰하고 과업을 실현하려는 의지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771	.702
5. 주도성	주변의 일을 스스로 실행하려는 정도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754	.837
6. 친밀성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의 유지 정도.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739	.819
전 체		60 문항	.942	.956

실시와 결과처리

연구자가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수업시간에 실시와 회수를 부탁하였다. 검사는 2010년 7월에 실시되었고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이었다.

검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교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하위 요인 간 상호상관과 요인별 신뢰도를 a 계수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총점과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2가지 준거척도와와의 상관도 산출하였다. 또한 검사점수의 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평균치의 개별비교는 집단의 사례수가 달라도 적용할 수 있는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검사의 요인구조

검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점수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에 의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한 후, 요인을 고유가 1 이상으로 한정하여 6개를 추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분산의 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치(communality: h^2) .40이하와 여러 요인에 이중 부하된 21개 문항을 제외하고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삭제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요인부하량은 .40이상이었다.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KMO(Kaiser Meyer Olkin)의 표본 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8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변인 간 상관 정도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도 의의 있게 나타났다.

Cronbach의 a 계수로 산출된 검사의 신뢰도는 표 6과 같이 5개 하위요인에서 모두 .70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 요인에서는 .58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6개 하위요인간의 상호상관은 대체로 낮게 나타나 독립적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문항 간 상관도 대부분 .20-.60 수준으로 나타나 문항의 동질성이 결여되거나 중복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엄한주, 1998). 6개 요인의 총점과의 상관도 대체로 .60 수준으로 나타나 각 요인이 총점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5. 검사의 요인 부하량

검사문항	요 인						h ²
	자존감	아버지	아동기	성인기	어머니	미래	
1. 나는 하려고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753	.058	.209	.021	.099	.079	.631
7. 나는 내 인생을 잘 영위할 것으로 생각한다.	.789	.037	.150	.112	.061	.017	.664
29.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536	.079	.248	.210	.234	.008	.454
37. 나는 언젠가 원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698	.074	.136	.070	.140	-.039	.537
44. 나는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92	.089	.146	.024	.128	.210	.440
5. 아버지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할 기회가 없다.	.015	.707	.047	.010	.125	.174	.549
11. 나는 아버지와 서로 잘 지낸다.	.122	.852	.053	-.008	.119	.019	.759
17. 아버지는 나를 멀리 하는 것 같다.	.046	.732	.133	-.118	.094	.136	.597
24. 아버지와 나는 함께 활동하며 재미있게 지낸다.	.078	.814	.047	.086	.168	.023	.706
42. 내가 곤경에 처하면 아버지가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080	.571	.082	.026	.285	-.140	.440
9. 어릴 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내게는 중요했다.	.172	.069	.665	.049	-.016	-.160	.505
16. 나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6	.066	.563	.145	.205	.064	.495
19. 어릴 때 나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	.062	.088	.739	.042	.042	.090	.561
32. 다른 사람들이 내 본래의 모습을 안다면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254	.113	.409	-.246	.117	.355	.445
34. 나는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다.	.160	.045	.701	.105	.118	-.057	.547
41. 어릴 때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었다.	.130	.062	.681	.027	.074	.230	.543
12. 나는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되면 더 자유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074	-.024	.130	.657	-.079	-.052	.463
23. 나는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걱정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123	.050	-.033	.654	-.073	.170	.481
31. 나는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347	-.002	.114	.688	.071	.098	.621
40. 어른이 되면 어릴 때보다 재미있을 것 같다.	.213	-.016	.064	.757	-.006	.155	.646
14. 난처한 일에 관해서 어머니와 상의할 수 있다.	.196	.174	.099	.053	.717	.018	.596
20. 어머니는 내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	.047	.235	.049	-.074	.724	.161	.616
27. 나는 어머니와 친밀감을 느낀다.	.177	.207	.127	.021	.750	-.050	.656
33. 어머니는 내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믿지 않는다.	.164	.137	.095	-.263	.504	.169	.406
10. 나는 어른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두렵다.	.071	.104	-.027	.110	.109	.757	.613
15. 어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086	-.028	.063	.309	.049	.658	.543
43. 나는 어른으로서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423	.141	-.026	-.002	.017	.600	.559
고유가	3.067	2.992	2.704	2.271	2.215	1.822	
분산의 비율	11.359	11.083	10.016	8.413	8.204	6.749	
누적 분산	11.359	22.442	32.459	40.871	49.075	55.824	
문항수	5	5	6	4	4	3	

주. KMO = .86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 = 5939.584$, $df = 726$, $p < .00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자료가 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χ^2 값이 709.466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수용되기 어려운 값

이지만 χ^2 는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χ^2 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론 모형이 자료

표 6. 검사의 하위요인별 총점과의 상관, 문항간 상관, 하위요인간 상호상관계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총점	문항간 상관	<i>a</i>	자존감	아버지	아동기	성인기	어머니
I. 자존감에 대한 태도	.700	.346-.562	.785					
II. 아버지에 대한 태도	.615	.300-.696	.820	.40				
III. 아동기에 대한 태도	.627	.197-.450	.756	.36	.18			
IV. 성인기에 대한 태도	.475	.240-.550	.707	.22	.25	.19		
V. 어머니에 대한 태도	.635	.303-.529	.721	.25	.41	.55	.64	
VI. 미래 성공에 대한 태도	.601	.227-.375	.584	.05	.11	.19	.38	.05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i>df</i>	<i>p</i>	GFI	NFI	IFI	CFI	RMR	RMSEA	PGFI	PNFI
지수	709.466	726	.001	.929	.876	.921	.921	.050	.045	.751	.765
수용기준			<i>p</i> > .05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80 이하	.05 이하	.60 이상	.60 이상

와 얼마나 합치되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와 이론 모형이 독립모형에 비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가 있다(홍세희, 2000). 절대적합도 지수로는 GFI(goodness of fit index, 기초합치도)와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원소 간 평균차이)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반영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개략화 오차 평균)를 선정하였고, 상대적합도 지수로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를 측정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비교합치도)와 IFI(increment fit index, 누가합치도) 그리고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NFI(normed fit index, 표준합치도)를 살펴보았으며, 간명도(parsimony) 반영지수인 PGFI와 PNFI도 함께 검토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모형과 연구모형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한 NFI(표준합치도)만 수용기준에 약간 부족하고 다른 모든 지수들은 수용기준을 초과하여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문항별 평균과 총점과의 상관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 문항은 대체로 3.50 정도의 점수분포를 보여 피터 팬 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았다. 문항과 총점과의 상관도 .22-.53의 분포를 보였다. 비교적 극단적인 반응 경향을 나타낸 문항은 4개 문항으로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17번),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27번), 취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37번), 성인기에 대한 불안(23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강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42번 문항)도 여학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에 대한 불안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10번 문항의 반응경향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준거척도와 상관

피터 팬 증후군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가지 준거와 상관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성을 학교급과 성별로 보면, 표 9와 같이 비교적 낮지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권위주의적 요인($r = .221, p < .01$)보다 민주적 요인($r = .430, p < .01$)과

표 8. 검사문항의 학교급별,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총점과의 상관(*r*)

문항	전체		학교급별								성별		<i>r</i>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남자			여자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14	3.57	.96	3.58	1.03	3.39	.96	3.56	.96	3.68	.89	3.50	.97	3.63	.96	.514
20	3.49	1.02	3.73	1.17	3.28	.99	3.23	1.01	3.60	.85	3.43	1.05	3.53	1.02	.476
27	4.02	.94	4.07	1.07	3.77	.96	3.94	.88	4.18	.81	3.92	.97	4.10	.94	.506
33	3.78	.98	3.82	.99	3.56	.96	3.51	1.01	4.04	.87	3.66	1.01	3.86	.98	.381
5	3.34	1.17	3.62	1.06	3.42	1.16	3.14	1.25	3.21	1.18	3.34	1.17	3.31	1.17	.461
11	3.68	1.02	3.88	1.17	3.72	.93	3.48	1.17	3.63	1.08	3.64	1.11	3.70	1.10	.511
17	4.23	.96	4.34	1.01	4.19	.97	4.18	.98	4.20	.90	4.18	.99	4.27	.96	.448
24	3.25	1.13	3.59	1.23	3.31	1.00	2.97	1.17	3.12	1.04	3.23	1.14	3.26	1.13	.517
42	3.52	1.10	3.59	1.08	3.39	1.00	3.30	1.14	3.69	1.09	3.37	1.16	3.64	1.09	.405
9	3.64	.87	3.45	.93	3.47	.79	3.78	.86	3.81	.82	3.73	.88	3.57	.87	.322
16	3.84	.90	3.88	.86	3.64	.93	4.03	.90	3.81	.88	3.89	.99	3.80	.90	.529
19	3.90	.93	3.89	1.04	3.77	.94	3.95	.95	3.96	.82	3.89	1.00	3.91	.93	.378
32	3.84	.92	3.81	.99	3.73	.89	3.92	.95	3.87	.84	3.85	.94	3.82	.92	.420
34	3.52	.92	3.50	.97	3.39	.95	3.62	.96	3.54	.81	3.60	.97	3.45	.92	.410
41	3.59	1.04	3.76	.96	3.45	1.05	3.52	1.12	3.58	1.02	3.61	1.06	3.57	1.04	.461
12	3.51	1.07	3.57	1.12	3.48	.96	3.76	.96	3.31	1.13	3.42	1.11	3.60	1.07	.266
23	2.44	1.09	2.84	1.13	2.70	1.01	2.38	1.10	1.99	.92	2.57	1.13	2.33	1.04	.222
31	3.46	.92	3.51	1.03	3.49	.80	3.49	.91	3.39	.91	3.47	.99	3.46	.86	.493
40	3.25	1.07	3.41	1.12	3.32	1.06	3.47	1.02	2.94	1.00	3.26	1.12	3.24	1.03	.427
1	3.87	.84	3.84	.89	3.76	.91	3.89	.76	3.95	.80	3.91	.91	3.84	.78	.533
7	3.83	.87	3.76	.96	3.76	.86	3.78	.85	3.98	.79	3.82	.93	3.85	.81	.513
29	3.80	.93	3.77	.96	3.62	.96	3.90	.91	3.89	.90	3.88	1.00	3.74	.87	.535
37	4.06	.84	4.09	.89	3.86	.84	4.04	.85	4.19	.78	4.05	.90	4.07	.79	.481
44	3.47	.95	3.59	1.01	3.34	.94	3.38	1.01	3.52	.85	3.57	1.04	3.38	.86	.509
10	3.09	1.07	3.52	1.07	3.44	.89	2.82	.94	2.69	1.07	3.22	1.05	2.98	1.09	.451
15	3.42	1.19	3.71	1.17	3.48	1.06	3.69	1.15	2.97	1.17	3.59	1.18	3.28	1.18	.377
43	3.30	1.07	3.70	1.05	3.23	1.01	3.05	1.08	3.21	1.00	3.36	1.12	3.26	1.00	.513

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피터 팬 증후군 정도가 어머니의 민주적 태도와 관계가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과 성별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두 번째 준거변인인 자아정체감과의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아정체감과 피터 팬 증후군 검사의 전반적인 상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r = .656, p < .01$), 하위요인에서는 주체성과 자기 수용이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관이 높아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급과 성별 경향에서는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의 변인별 평균치 차이

피터 팬 증후군 척도 점수의 조사변인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평균치는 요인별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문항 점수인 5점 만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성별 경향을 보면, 총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에서는 어머니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었고($t = 8.455, p$

표 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외의 변인별 상관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학교급별				성별	
		초	중	고	대	남자	여자
권위주의적	.221**	.313**	.180**	.200**	.304**	.201**	.245**
민주적	.430**	.478**	.495**	.377**	.495**	.459**	.406**
전체	.204**	.143**	.405**	.168**	.177**	.251**	.154**

** $p < .01$

표 10. 자아정체감과외의 변인별 상관

자아정체감	전체	학교급별				성별	
		초	중	고	대	남자	여자
주체성	.592**	.653**	.627**	.557**	.574**	.628**	.555**
자기수용	.604**	.617**	.578**	.607**	.678**	.636**	.575**
미래확신	.450**	.578**	.285**	.447**	.401**	.476**	.432**
목표지향	.321**	.402**	.222**	.313**	.263**	.316**	.326**
주도성	.437**	.460**	.348**	.420**	.420**	.475**	.402**
친밀감	.483**	.468**	.439**	.483**	.504**	.494**	.475**
전체	.656**	.696**	.645**	.627**	.647**	.686**	.632**

** $p < .01$

<.01),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t = 13.023, p < .01$).

학교급별로 보면, 대체로 초등학생이 중등학생이나 대학생과 유의 있는 차이를 보여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대다수의 하위요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수준별 경향을 보면, 총점과 일부 하위요인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피터 팬 증후군 점수는 증가하여 증후군이 낮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와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적수준에 따른 반응을 보면, 총점과 일부 하위요인에서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검사점수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아동기와 성인기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다른 4개 하위요인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반응 경향에서도 유의 있는 차이를 보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피터 팬 증후군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피터 팬 증후군은 낮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하위요인에서도 성인기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검사의 하위요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고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장을 주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피터 팬 증후군 척도를 타당화 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영동지역 소도시의 초·중등학생과 대학생 727명에게 피터 팬 증후군 척도와 함께 준거척도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Randoph와 Dye(1981)에 의해서 6개 요인과 48개

표 11. 검사의 하위요인과 변인별 평균치(표준편차)와 분산 분석 요약

변인	n	어머니에 대한 태도	아버지에 대한 태도	아동기에 대한 태도	성인기에 대한 태도	자존감에 대한 태도	미래성공에 대한 태도	총점	
전체	727	3.57(.80)	3.84(.69)	3.68(.68)	3.56(.74)	3.29(.76)	3.17(.75)	3.51(.45)	
성	남자	332	3.63(.72)	3.56(.83)	3.76(.68)	3.18(.78)	3.85(.72)	3.39(.79)	3.56(.47)
	여자	395	3.78(.72)	3.64(.84)	3.69(.57)	3.16(.74)	3.78(.59)	3.17(.83)	3.53(.43)
	t	8.455**	1.412	2.611	.207	2.053	13.023***	.642	
학교급	초	185	3.80(.86)	3.80(.86)	3.71(.62)	3.34(.84)	3.81(.71)	3.65(.82)	3.69(.49)
	중	151	3.50(.70)	3.60(.71)	3.58(.62)	3.25(.68)	3.67(.63)	3.38(.69)	3.50(.41)
	고	159	3.56(.67)	3.41(.89)	3.80(.68)	3.27(.74)	3.80(.64)	3.19(.74)	3.51(.42)
	대	232	3.88(.67)	3.57(.82)	3.76(.58)	2.91(.69)	3.91(.61)	2.95(.81)	3.50(.42)
	F	12.255***	6.607***	4.009**	14.507***	4.172**	28.941***	8.335***	
	Scheffe	중고<초대	고<초	중<초고대	대<초중고	중<초고대	대<초	중,고대<초	
어머니 학력	중졸	94	3.72(.67)	3.34(.88)	3.78(.59)	3.12(.70)	3.82(.62)	3.07(.93)	3.48(.40)
	고졸	392	3.68(.73)	3.58(.81)	3.68(.61)	3.14(.76)	3.78(.65)	3.19(.77)	3.51(.43)
	대졸	241	3.76(.72)	3.74(.83)	3.76(.66)	3.23(.77)	3.84(.67)	3.48(.81)	3.63(.47)
	F	.855	8.018***	1.611	1.207	.621	13.127***	7.275***	
	Scheffe		중<대			중,고<대	중,고<대		
성적 수준	상위	184	3.88(.73)	3.73(.86)	3.78(.65)	3.19(.78)	4.06(.60)	3.33(.90)	3.66(.44)
	중위	441	3.69(.71)	3.60(.82)	3.70(.62)	3.15(.76)	3.76(.63)	3.29(.79)	3.53(.44)
	하위	102	3.49(.70)	3.40(.83)	3.69(.62)	3.17(.70)	3.56(.68)	3.08(.77)	3.40(.41)
	F	10.329***	5.159**	1.225	.184	24.560***	3.223*	12.576***	
	Scheffe	하<상,중	중,하<상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	
경제적 수준	상	69	3.82(.90)	3.94(.87)	3.91(.67)	3.26(.78)	4.09(.76)	3.44(.87)	3.75(.52)
	중	580	3.72(.69)	3.62(.80)	3.71(.62)	3.18(.74)	3.78(.63)	3.29(.80)	3.55(.43)
	하	78	3.54(.77)	3.20(.91)	3.63(.59)	3.00(.85)	3.76(.64)	2.96(.84)	3.35(.42)
	F	3.135*	15.485***	4.143*	2.498	7.454***	7.597***	15.199***	
	Scheffe	하<상,중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	

* $p < .05$, ** $p < .01$, *** $p < .001$

문항으로 구성된 피터 팬 검사 점수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결과, 요인부하량 .40이상인 27개 문항이 선정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제외된 21개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작을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요인에 이중부하되어 의미가 복잡적이거나 모호한 것들이었다. 고유가 1이상인 6개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 분산은 전체 분산의 55.8%이었고, 요인 간 상호상관은 .05-.64로 대부분 적절한 양상을 보였으며, 요인별 검사의 신뢰도는 .58-.82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신뢰도가 .58로 낮은 하위요인인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3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차후에 적절한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27개 문항의 평균치는 3.50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고, 각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도 .22-.53으로 적절했다.

준거척도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검사가 이용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와의 상관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r = .204$), 하위요인에서 권위주의적 요인($r = .221$)보다 민주적 요인($r = .430$)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성별과 학교급에서도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피터 팬 증후군이 어느 시기에서나 남녀 모두 어머니의

민주적 태도만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태도의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유추해 볼 때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부모의 민주적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인 수용과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옥분, 2006; 최윤희, 2003). 일반적으로, 민주적 부모는 청소년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여 정체감을 촉진시키며, 독재적 부모는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정체감 유실과 혼미를 조장한다(Santrock, 2009). 그러나 서양과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동양에서는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를 자녀가 권위주의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으로 간주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Deater-Deckard et al., 2011; Rudy, & Grusec, 2001). 이희영과 최태진(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정과 과잉간섭이 자녀의 정서적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 역시 자녀의 피터 팬 증후군과 어느 정도 상관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전체 점수와의 상관이 두 하위요인과의 상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상반되는 하위요인의 상쇄 효과로 분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준거척도인 자아정체감 점수와의 전반적인 상관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r=.656$)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피터 팬 증후군 척도 점수는 낮아서 피터 팬 증후군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감이 낮은, 즉 혼미나 유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거부나 간섭 또는 지나친 통제로 인하여 자기애, 자의식, 공허감, 소외감, 열등감을 느끼며 사회생활에 미숙하고 충동적,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오경자 외, 1997). 이러한 특성은 피터 팬 증후군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에서는 주체성과 자기수용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피터 팬 증후군 점수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 두 요인에서 남학생의 상관이 여학생보

다 더 높았다. 즉, 주체성과 자기수용성이 높을수록 피터 팬 증후군은 약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자신의 일을 자신 있게 스스로 처리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와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긍정적 태도는 피터 팬 증후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 특성에 속하는 것이다.

피터 팬 증후군 척도 점수의 평균치를 몇 가지 관련변인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는 없었다. Randolph와 Dye(1981)가 처음에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아청(2004)의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정체감의 성차는 학교급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요인에서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그리고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녀간 친밀감과 동일시 현상에서 보면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여학생의 정체감 발달이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서 남학생은 대체로 직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허혜경, 김혜수, 2010)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 역시 성차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휘숙(2010)도 고교생의 경우에 미래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남학생이 보다 성숙함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서 증후군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 피터 팬 증후군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아정체감 성취는 대체로 학교급에 따라 증가하고 혼미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권이중, 김용구, 2007; 허혜경, 김혜수, 2010; 안귀덕 외, 1992) 피터 팬 증후군도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중등이나 대학생보다 증후군이 낮은 것은 청소년 초기에 정체감 확립을 위한 노력이 아직 미비한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피터 팬 증후군 점수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비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하위요인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래와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 때문

에 피터 팬 증후군은 약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도 높다는 송현옥과 박아청(2009)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도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피터 팬 증후군은 낮았다. 정체감 성취는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권이중, 김용구, 2007)에 비추어 볼 때, 피터 팬 증후군은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목표의식이나 인내심, 자제력이 약해서 피터 팬 증후군에 속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피터 팬 증후군 정도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 것은 정체감 발달수준이 사회계층에서 하류층이 중상류층보다 높다는 선행연구(허혜경, 김혜수, 2010)에 비추어 보면 상반되는 결과인 듯 보이지만,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정체감도 낮다는 연구(송현옥, 박아청, 2009; 이종원 외, 2010)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은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자녀의 학업 성적은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Duncan, Morris, & Rodrigues, 2011), 피터 팬 증후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끝으로, 하위 척도의 개략적인 평균치 비교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태도와 성인기 및 아동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데 비해서 자존감과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Randopl와 Dye(1981)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미래의 성공에 대해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고, 성인기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 집단은 부모와 같은 식으로 하고 싶진 않더라도 성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낙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Randopl, & Dye, 1981). 이 반면에,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와 다른 성인에 비해 자신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자존감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익숙한 입시경쟁과 취업난

을 예상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아동기와 성인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태도는 이러한 현실과 대비되어 자신의 지나간 과거가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성인의 자유와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막연한 동경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직장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조선일보, 2011, 8. 23), 주로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으로 79%가 학창시절에 화려한 도시 직장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일치되지 않아서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명한 연관성은 추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터 팬 증후군 척도는 준거관련 타당도와 요인타당도가 검증된 신뢰할만한 검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하위요인은 신뢰도가 다소 낮고 문항이 너무 적어서 활용의 제약은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풍부한 타당화 자료를 추가하여 척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척도의 양호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 수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적절히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개 문항으로 구성된 미래의 성공에 대한 태도 요인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사용의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항 내용에 관한 세밀한 분석도 요구된다. 일부 문항은 피터 팬 증후군의 특성보다는 그 심리적 원인이나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원검사의 하위요인에 대한 재정의와 문항 수정을 동반하게 되어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검사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을 한정된 지역, 특히 소도시에서 선정하여 피터 팬 증후군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증후군은 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쟁이 심한 대도시에서 보다 쉽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문용린 외(1996)는 아노미(anomie)적 태도를 취하는 8% 정도의 청소년들이 주로 대도시에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대도시에서 보다 많은 대상에

게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자들과 실업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의미 있는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피터 팬 증후군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많이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변인별 비중을 파악하면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후군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와 그 유형에 따른 결과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Grusec과 Davidov(2010)는 부모의 통제와 보호가 자녀의 안정 애착과 사회성 및 자제력을 유도하지만 지나치면 의존성과 자신감 부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아청(1998, 2002)은 과보호의 유형을 시간을 중심으로 과거의 보호를 계속하거나 현재의 단계에서 지나친 보호를 하거나 미래에 해당되는 보호를 미리 하는 3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청소년은 독립에 대한 양면감정을 갖게 되어 독립의 특권을 즐기려 하면서 그 책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립은 힘든 판단과 결정 및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지 못하면 아동으로 돌아가려는 소망과 성인이 되려는 소망이 계속 대립된다. 다양한 가치가 병존하는 사회에서는 주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자아의 확립이 없이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과보호와 익애를 예방하고 자립심과 책임감을 육성하는 길(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9, 2010, 2011; Elmore, 2010)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이중, 김용구 (2007). **청소년 이해론**. 서울: 교육과학사.
 금명자, 감광수, 전명희 (1997). **청소년의 미래의식**.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김미령 (2008).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과 우울, 불안, 강박과의 관계**. 서울: 한국학술정보.
 김선애, 연진영 (19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0(2), 45-60.
 김혜진, 방희정 (2008). 어머니 양육이 모-자녀 갈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65-187.
 동아일보 (2000. 12. 8). 사회 부적응,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컴백 흠. 사회면.
 동아일보 (2004, 5, 5). 엄마가 대신... 사회면.
 동아일보 (2006, 11, 13). 당신, 차라리 엄마랑 살아. 국제면.
 동아일보 (2010, 10. 4). 미국에서도 자녀 명문대 보내기 극성 부모 급증. 국제면.
 동아일보 (2011. 8. 6). 하의실종 패션 읽기. 사설.
 문용린 외 4인 (1996). **신세대의 이해**. 서울: 삼성복지재단.
 박경애, 임은미, 김택호 (1997). **청소년의 꿈.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4**,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박아청(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 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박아청 (2002).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 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박아청 (2008). **청소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교육과학사.
 박아청,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13(1), 113-142.
 배제현 (1994).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 71-90.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9). **부모-자녀 함께 가**

- 는 멋진 세상. 서울: 교육과학사.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10). **천상천하 유아공존**. 서울: 교육과학사.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11). **내 꿈에 날개를 달자**. 서울: 교육과학사.
- 송현옥, 박아청 (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구조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297-321.
- 스포츠서울 (2008, 9, 1). 미 20대 남성 피터 팬 증후군 심해진다.
- 안귀덕, 황정규, 김형립, 이연섭, 박영신 (1992). **한국 청소년 문화 II**.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엄한주 (1998). 신뢰계수의 종류와 추정법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1), 35-49.
- 오경자, 안동현, 김병석, 금명자, 신민섭 (1997). **청소년 이상행동**.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성진 (2005). **한국인의 성장, 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호 (2002).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명칭과 사회적 인식의 변천. **한국교육**, 29(2), 323-357.
- 이은희, 정순옥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7(2), 213-239.
- 이종원, 오승근, 김은정 (2010).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 사회 변동 전망 III: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차선 (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변인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이현주, 강민희 (2008).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 타당화 및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과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3), 5-31.
- 이희영, 최태진 (2005). 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93-123.
- 장휘숙 (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존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17.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조아미 (2008). **1318 청소년심리**. 서울: 학지사.
- 조선일보 (2009, 5, 19). 빗나간 모정.
- 조선일보 (2009, 6, 15). 일, 화장하는 초식남 급증. 국제면.
- 조선일보 (2009, 10, 15). 아이비리그 44% 중도하차... 실패 원인 잡아라.
- 조선일보 (2010, 1, 18). 이탈리아 장관, 마마보이 법으로 규제. 국제면.
- 조선일보 (2010, 9, 1). 미셀 칸 키운 엄마는 스마트맘. 사회면.
- 조선일보 (2011, 3, 15). 구직활동 포기 청년백수 100만 명 넘었다. 사회면.
- 조선일보 (2011, 8, 6). 대학 5, 6학년생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사회면.
- 조선일보 (2011, 8, 8). 대출 비정규직, 백수 매년 15만 명. 사회면.
- 조선일보 (2011, 8, 9). 부메랑 세대. 사설.
- 조선일보 (2011, 8, 23). 학창시절에 품었던 직장인에 대한 환상. 사회면.
- 조선일보 (2011, 9, 22). 41세 썬더루족 아들 줘내쫓아 주세요. 국제면.
- 최윤화 (2003). 청소년 자아상과 가정의 심리과정적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351-372.
- 허혜경, 김혜수 (2010). **청년발달**.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 Buri, J. R. (1991). Parental Authority

-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1), 110-119.
- Bussey, K. (2011). Gender identity development.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03-628). New York: Springer.
- Colom, R., & Lynn, R. (2004). Testing the developmental theory of sex differences in intelligence on 12-18 year ol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75-82.
- Cote, J. E. (2009). Identity formation and self-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 L. Ster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3rd ed., Vol. 1, pp. 266-304). Hoboken, NJ: Wiley.
- Covitz, J. (1990). Narcissism: The disturbance of our time. In J. Abrams (Ed.), *Reclaiming the inner child* (pp. 120-125).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 Deater-Deckard, K. et al.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warmth and control in thirteen cultural grou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5), 790-794.
- Duncan, G. J., Morris, P. A., & Rodrigues, C. (2011). Does money mat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263-1279.
- Dwairy, M., Achoui, M., Abouserie, R. & Farah, A. (2006). Parenting styles, individuation, and mental health of Arab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3), 262-272.
- Elmore, T. (2010). *Generation iY: Our last chance to save their future*. Atlanta, GA: Poer Gardener Pub.
- Erikson, E. (1994).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Norton.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sec, J. E. & Davidov, M. (2010). Integrat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A domain-specific approach. *Child Development*, 81(3), 68-709.
- Josselson, R. (1988). The imbedded self.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pp. 91-108). New York: Springer.
- Kiley, D. (1995). *The Peter Pan Syndrome*. New York: Avon Books.
- Kroger, J. (2004). *Identity in adolescence* (3rd ed.).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Kroger, J. (2007). *Identity development: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Kroger, J., & Marcia, J. E. (2011). The identity statuse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31-54). New York: Springer.
- Meeus, W., Schoot, R., Keijsers, L., Schwartz, S. J., & Branje, S. (2010). On the progression and stability of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 five-wave longitudinal study in early-to-middle and middle-to-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81(5), 1565-1581.
- Miklikowska, M., Duriez, B., & Soenens, B. (2011). Family roots of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47(5), 1342-1352.
- Mitchell, J. (1971). *Adolescence*. Toronto: Holt.
- Randolph, E. M., & Dye, C. A. (1981). The Peter Pan Profil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luctance to grow up. *Adolescence*, 16(64), 841-850.

- Rice, F.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12th ed.). Boston: Allyn & Bacon.
- Rudy, D., & Grusec, J. E. (2001). Correlates of authoritarian parenting in individualist and collectivist cultures and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transmission of valu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2), 202-212.
- Santrock, J. W. (2009). *Adolescence* (13th ed.). New York: McGraw-Hill.
- Satinover, J. (1990). The childhood self and the origins of puer psychology. In J. Abrams (Ed.), *Reclaiming the inner child* (pp. 144-155).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 Tapscott, D. (2009). *Grown up digital*. New York: McGraw-Hill.
- Woodward, K. L. (1990). Young beyond their years. *Newsweek* (Special edition), Winter/Spring, 54-60.
- Yeroman, A. (1998). *Now or Neverland: Peter Pan and the myth of eternal youth*. Toronto: Inner City Books.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08.

Validation of The Peter Pan Profile to Measure Adolescents' Reluctance to Grow Up

Sung-Il Kim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un-Young Shim

Kyungpo Elementary School

The desire to remain a child, at least at heart, afflicts us all. Each mature adult harbors an occasional wish to escape into childhood. A syndrome consisting symptoms of reflecting both conscious and unconscious forces deterring choice, decision, or resolution has been identified and resulted in The Peter Pan Profile, which has 6 sub-scales defined by developmental theory and the syndrome's characteristics. These 6 categories have been composed of attitudes toward mother and father, self-esteem, childhood, adulthood, and futurity. Each sub-scale contains four positively and four negatively weighted items responding five-point Likert-type response op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validate the Profile. The 48-item instrument and two other criterion measures, Ego-Identity Scale and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727 primary, secondary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And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27 items which have factor loadings larger than .40. Reliability coefficients (Cronbach's α) of the scale were found to range from .58 to .82, lending credibility to the tool's capacity for accurate assessment of this phenomenon. For the criterion-referenced validity of the Profile, correlation between the Profile and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was appeared to be .204 and that between the Profile and ego-identity found to be .656. No significant differences was found between males and females on the total score. However, the Peter Pan Profile scores varied by school level, mother's educational level, 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adolescents. Continued reliability and validity evaluation would be necessary to further improve the instrument's capacity to accurately assess reluctance to grow up. Some suggestions for making more valid scale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the Peter Pan Syndrome, psychological test, validation

